

국내 바이오, CNS 영역 넓힌다… 기술수출 이어 임상 확대

〈중추신경계〉

에이비엘바이오 8조 기술이전
SK바이오팜 글로벌 3상 확대
아리바이오 알츠하이머 3상 진입
비보존제약 후속 CNS 후보 준비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중추신경계(CNS) 신약개발을 중심으로 글로벌 존재감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특히 에이비엘바이오가 잇따라 수조 원대 기술이전 계약을 성사시키며 뇌혈관장벽(BBB) 투과 플랫폼 경쟁력을 입증한 가운데, SK바이오팜·아리바이오 등 주요 기업도 CNS 파이프라인 강화에 속도를 내며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선 모습이다.

19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이중항체 전문기업 에이비엘바이오는 올해 들어 글로벌 빅파마와 대형 계약을 확보하며 ‘그랩바디-비(Grabody-B)’ 플랫폼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지난 12일 미국 일라이 릴리와 약 3조8236억원 규모의 ‘그랩바디-비’ 기술이전 및 공동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그랩바디-비를 기반으로 다양한 차세대 치료제를 개발한다. 특히 적응증을 비만, 근육 질환 등 미충족 의료 수요가 큰 분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일라이 릴리와 220억원 규모의 지분 투자 계약까지 맺었다. 해당 투자는 이중항체 ADC(항체·약물접합체) 등 회사 핵심 기술 개발에 투입된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앞서 올해 4월에도 영국 제약회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약 4조1104억원 수준의 ‘그랩바디-비’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뇌질환 연구개발을 표현한 이미지.

그랩바디-비를 적용한 퇴행성뇌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독점적 권리를 이전한 것이다. GSK는 그랩바디-비를 소형 간섭 RNA(siRNA),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ASO),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항체 등 첨단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 활용한다.

그랩바디-비는 약물의 뇌혈관장벽(BBB) 투과율을 높이는 기술로, 퇴행성 뇌질환을 비롯해 중추신경계(CNS) 질환의 발병 원인에 근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상훈 에이비엘바이오 대표는 “그랩바디 플랫폼의 사업화 잠재력을 재확인했다”며 “현재 그랩바디 위상은 매우 높고 그랩바디 적용 가능 모달리티의 확장이 지속되고 있어 이러한 흐름을 살려 에이비엘바이오의 그랩바디가 전 세계 환자들에게 혁신적인 치료 옵션을 제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K바이오팜은 ‘넥스트CNS’ 전략에 박차를 가한다. 우선 대표 품목인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의 신규 적응증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세노바메이트는 현재 성인 부분발작 환자를 대상으로 승인되어 처방되고 있으며 향후 청소년 및 성인 대상 전신발작으로 적응증을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SK바이오팜은 오는 12월 열리는 2025 미국뇌전증학회(AES)에서 임상 3상 세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12개 국가 내 122개 임상시험 기관에서 만 12세 이상 일차성 전신 강직-간대발작 환자 169명을 대상으로 위약 대비 세노바메이트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해 긍정적인 타라인을 확보한 것이다.

이밖에 집중력 장애 치료제 후보물질

‘SKL13865’, 조현병 치료제 후보물질 ‘SKL20540’ 등도 CNS 영역 관련 물질들이다. 최근에는 미국 보스턴 바이오텍 기업 인테론과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 치료제 후보물질 공동연구에 나섰다. 지난달에는 캐나다에서 인공지능 기반 뇌전증 관리 헬스케어에 위한 조인트 벤처 ‘멘티스케어’를 출범하는 CNS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아리바이오와 SK케미칼은 알츠하이머병 신규 제형을 개발하며 협력해 왔다. 국산 경구용 알츠하이머병 신약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아리바이오의 경구형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AR1001’는 글로벌 임상 3상에 진입해 있다. 미국, 유럽 7개국, 한국, 중국 등 총 13개 국가에서 1535명의 환자 등록을 마치고 최종 단계에 돌입한 상태다.

비보존제약도 CNS 시장을 공략하는 움직임이다. 비보존제약은 지난해 제38호 국산 신약으로 아나프라주를 내놓음으로써 ‘다중 타겟 화합물 발굴 플랫폼’ 경쟁력을 높였다.

후속 파이프라인으로 파킨슨병 치료제 ‘VVZ-3416’ 등을 보유하고 있어 오는 2026년 하반기 국내 임상 1상 개시를 추진한다.

비보존제약에 따르면 VVZ-3416은 다중 타겟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된 신약후보물질인 만큼, 파킨슨병, 운동 이상증, 노인성 치매 및 루게릭병 등 여러 퇴행성 중추신경계 질환에 적용 가능한 기전 규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동아제약

‘육식과 키위효소’ 선택 단백질 분해 기능 강화

동아제약은 CU편의점에서 ‘육식과 키위효소’를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키위의 단백질 분해 효소 ‘액티니딘’에 주목해 개발된 제품이다. 키위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한 슈퍼푸드에 알려졌고 예로부터 고기를 부드럽게 하는 연육 작용에도 활용되어 왔다.

동아제약에 따르면 육식과 키위효소는 뉴질랜드산 그린키위를 동결건조해 만든 원료 ‘악타진’을 함유한다. 악타진은 단백질 분해 효소 액티니딘을 포함하며 장 운동을 돕는 효능을 갖는다.

여기에 단백질 분해 효능을 검증 받은 파인애플 유래 효소 ‘브로멜라인’까지 더해졌다. 물 없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상큼한 키위맛 분말형 제품으로 설계된 것도 특징이다.

또 브랜드명은 ‘육식파를 위한 육식타파 제품’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전달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육식파 키위효소’

/동아제약

CJ올리브영, 美 1호점 첫선… K-뷰티 현지공략 가속

글로벌로 전체 매출 40% ‘미국’
물류 협업에 K-브랜드 진출 확대

CJ올리브영이 미국 현지에서 K뷰티 특화 매장을 선보이며 글로벌 소비자와 직접 교류하고 K쇼핑을 본격 확산한다.

CJ올리브영은 오는 2026년 5월 미국 캘리포니아 패서디나 지역에서 미국 1호 매장을 개점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미국은 세계 최대 뷰티 시장을 보유

하고 있고 세포라, 얼타뷰티 등 글로벌 뷰티 전문 유통사들이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올리브영은 패션·뷰티에 특화된 핵심 상권에 우선 출점해 유행에 민감한 MZ세대 소비자를 먼저 공략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후 2026년 내 순차적으로 로스앤젤레스 웨스트필드 등에 복수 매장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아마존, 올리브영 글로벌몰 등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구축한

‘K뷰티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리브영은 글로벌몰 등을 통해 이미 미국 시장에서 K뷰티 성장세를 입증해 왔다. 올해 상반기 기준 올리브영 글로벌몰 전체 매출의 40% 이상은 미국에서 발생했다. 이러한 판매 호조에 힘입어 올리브영은 지난 7월에는 글로벌 특송 기업 페더럴 익스프레스 코퍼레이션과 한미 특송 및 미국 내 물류 서비스에 대

한 업무협약도 맺은 바 있다. 향후 CJ대한통운 미국법인과 협업해 현지에서 상품을 직접 발송하는 물류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내 브랜드의 수출 확대도 전망된다. 실제로 올리브영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손잡고 차세대 K뷰티 브랜드를 발굴하는 ‘K-슈퍼루키 워드 영’ 본사업을 운영하며 국산 브랜드를 전 세계로 진출시키고 있다.

/이청하 기자

HK이노엔 ‘케이캡’, 세계일류상품 선정

P-CAB 계열 국산 30호 신약

HK이노엔은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KOTRA)가 주관하는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에서 ‘현재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선정된 97개의 ‘현재 세계일류상품’ 중 의약품으로는 케이캡이 유일하다.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은 국내 우수 상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증사업이다. 세계 시장점유율 5% 이상, 세계 5위 이

내, 연간 수출 규모 500만 달러 이상인 상품과 기업을 ‘현재 세계일류’로 선정한다.

HK이노엔의 케이캡은 제30호 국산 신약이며 칼륨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P-CAB) 계열 약물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분야에서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복용 후 1시간 이내에 약효가 나타나 빠른 증상 개선 효과를 제공하고, 야간에도 강력한 위산분비 억제 효과를 유지해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높이고 있다.

/이청하 기자

쿠팡, 로켓배송 인기 먹거리 9000개 할인

가공·건강식품 등 전범위 적용

쿠팡이 9000여개 먹거리를 모은 식품 블랙프라이데이 할인 기획전을 이달 30일까지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1000여개 인기 식품 브랜드가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라면, 밀키트 등 가공·즉석식품부터 건강식품까지 폭넓은 카테고리 상품을 로켓배송으로 선보인다.

대표 브랜드로는 종근당건강, 뉴트리원, 풍년보감, 황금이네, 전두유 등이 참여한다. 특히 인기 유튜브 하باط과 협업

한 신제품이 최초로 공개되며, 오픈 기념 특별 할인도 적용된다.

쇼핑 편의를 높이기 위해 후기 100개 이상을 보유한 믿고 먹는 쿠팡템, 가성비 식품을 모은 1만원 이하, 최근 구매 많은 상품 등 다양한 테마관도 마련했다.

대표 상품으로는 종근당건강 비타민 D 2000IU, 풍년보감 6년근 고려홍삼정 에브리데이100 홍삼스틱, 완전두유 검은콩 17곡 고칼슘, 황금이네 생강청 등이 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한국필립모리스

‘아이코스 일루마 i’ 시리즈 보증기간 연장

한국필립모리스는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 최신 라인업인 ‘아이코스 일루마 i’ 시리즈의 보증 정책을 확대해 소비자 신뢰와 서비스 품질을 더욱 강화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고객 만족도 제고와 함께, 비연소 제품 카테고리의 저변 확대와 소비자 중심 혁신을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이번 보증 정책 강화는 일루마 i 시리즈 전 제품에 적용되며, 총 12개월에서 18개월로 보증 기간이 연장된다. 기존에는 6개월의 기본 보증과 기기 등록 시 6개월의 연장 혜택이 제공됐으나 이번 조치로 추가 6개월이 더해져 총 18개월간 무상 보증이 가능해졌다.

정책 시행 시점은 제품 출시 이후 이미 순차적으로 반영되어 왔으며, 현재 일루마 i 시리즈를 사용 중인 고객은 기기 등록을 완료했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 확대된 보증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신규 구매 고객은 아이코스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회원가입 및 기기 등록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